

Gary Yates 박사, 예레미야, 강의 12, 예레미야 7, 성전 설교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12회, 예레미야서 7장, 성전설교입니다.

오늘 우리 모임에서는 예레미야서 7장과 성전설교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나는 다가오는 경기의 중요성을 자신의 팀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한 젊은 대학 농구 코치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우리가 치른 경기 중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젊은 코치로서 일곱 번째 경기를 치를 때까지 그는 이미 그들에게 다섯 번이나 다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나는 이것이 내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이거나 어쩌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른다고 말할 때가 있을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성전 설교는 여러 면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이 무엇인지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해서 책의 두 번째 부분인 예레미야 26장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있으며, 학자들은 이것이 동일한 메시지인지 유사한 메시지인지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두 부분 모두 예레미야가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구절의 차이점은 예레미야 7장은 설교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예레미야 26장은 그 설교에 대한 청중의 반응과 반응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이나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의 What Think You of Christ? 미국 역사에서

우리는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과 같은 연설을 기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레미야를 생각해보면 이 설교가 예레미야의 설교 중 가장 잘 알려진 설교입니다.

이것이 다시 그의 사역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이런 기만적인 말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요, 여호와의 전이요, 여호와의 전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로잡고 진실로 피차 공의를 베풀며 객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가지 아니하면 너희 자신에게 해를 끼치도록 다른 지침을 따른 후,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본다. 조건부 구조가 여기에 확실히 제시되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이 땅, 곧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히 준 이 땅에 거주하게 하리라. 보라, 너희는 거짓된 말을 의지하여 헛되이 행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려느냐?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이르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이 모든 가증한 일을 계속 행할 뿐이라 하라.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곳 실로에 있는 내 곳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곳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끈질기게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 곧 너희가 의뢰하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행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의 모든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저는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우리 모두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26장에 보면 청중의 반응을 보면 놀랄 것도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 그곳에 있던 영적 지도자들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집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일종의 거짓 예언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가 서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하도록 그의 백성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절대적인 보호의 보장을 의미하게 된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것은 거짓 예언이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때 이 메시지를 조금 더 전파하는 데 필요한 용기와 그 거짓된 확신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성전 신학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있을 때, 어떤 의미에서 그 동산은 단순한 동산이 아닙니다. 동산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소이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날이 서늘할 때에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산에서 누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 존재감을 잃었습니다.

동산 문에는 그룹들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그 부분의 끝 부분에 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그와 교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할까요? 자, 우리는 족보 중 하나의 두 장을 살펴보고 에녹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아이를 낳고, 죽는 모든 사람들과 삶과 죽음에 대한 이런 종류의 반복적인 이야기 속에서 에녹에 대해 말해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다가가고 계시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앞에서 행하여 흠이 없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실 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에 대한 구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인도하여 들여서 주의 산, 곧 여호와께서 위하여 예비하신 땅에 심으실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손으로 마련하신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풍요롭고 번영하는 땅을 생각 하지만 약속의 땅은 성소였다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덴동산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성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덴동산의 메아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행하여 흠이 없는 자가 되라.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행하실 곳입니다. 단순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곳만은 아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처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외에도 성전과 성막, 거기에 있는 언약궤, 성소도 하나님의 통치처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의미하며, 하이칼 은 큰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원이나 궁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발등상을 상징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앞에 거하십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광경, 소리, 냄새, 음식,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성막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우리의 위대한 대성당 중 하나처럼 단지 거대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일어서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이곳을 멸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 이어온 성전 신학 전체를 뒤엎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웃으로 삼아 누리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로 인해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안전을 찬양하는 시온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에는 예루살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로 인해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과 하나님의 안전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합니다. 시편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유다 백성들은 성전 신학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 신학과 시온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안전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들 가운데로 와서 그 전통을 뒤집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안전의 근원이 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사 자기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의 소유인 곳을 멸하시리라. 이 시편, 시편 46편에서 사람들은 어떤 재난이 우리 삶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무너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지며 물이 오르렁거리며 거품이 일고 산들이 그 넘침으로 말미암아 진동할지라도 그들이 폭풍을 상상하나니 이는 단순한 폭풍이 아니라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나 쓰나미니라 온 땅과 산과 바다가 포효하며 거품을 일으키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안전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평화로운 폭풍우 피난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처소를 기쁘게 하느니라. 그래서 앞의 구절에서 우리는 온 땅을 뒤흔드는 격렬한 물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곳,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 이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는 평화로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물 공급원이었던 기혼 시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임재로 인해 예루살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폭풍이 땅을 뒤흔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안전합니다. 그런 다음 시편 46편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상상합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두 가지 일은 지구를 뒤흔드는 폭풍, 자연재해, 지진, 쓰나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로 큰 비극은 적군의 침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에는 열방이 분노하며 나라 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음성을 발하시매 땅이 녹는도다 하였느니라. 산이 흔들리고 물이 요동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동일한 단어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할 적군을 상상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이에 대한 응답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녀 가운데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아침이 밝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공격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그 곳에 나타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가 땅에 황폐와 파멸을 가져오셨음으로다” 라고 끝맺습니다 . 그분은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는 활을 부러뜨린다. 그는 창을 부수었다. 그는 불로 수레를 태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나는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나는 땅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재앙 두 가지 , 땅을 뒤흔드는 폭풍, 적의 침략,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의 집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는 땅의 다른 모든 물이 으르렁거리고 거품이 날 때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잔잔한 시냇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46편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는 유일한 곳은 아닙니다. 시온의 또 다른 노래인 시편 48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크게 찬송하리로다.

높고 아름다운 그의 거룩한 산은 온 땅의 기쁨이로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 곧 큰 왕의 성이라 그 성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요새로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높이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온은 높은 산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본 적이 있다면 시온산이 우리에게 언덕처럼 보인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8편은 “보라, 왕들이 모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놀라고 두려워하며 도망갔습니다.

떨림이 그곳에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분만 중인 여성의 고뇌. 당신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와 성,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실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들었노라. 그래서 시편 48편도 시편 46편과 마찬가지로 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력한 동풍으로 그 군대를 멸하십니다.

시편 76편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온 시편.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609년에 예레미야의 설교와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집을 멸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의 성전 설교 사이에는 인지적 단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48편, 76편에 관한 우리의 전통,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지 자체가 성소라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걸로 무엇을 할까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시온 전통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끔 격려 집회를 열고 학교 투쟁 노래를 부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우리는 48대 0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노래가 아무 의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역사적 사건을 통해 확인된 노래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그가 이 메시지를 기원전 609년에 설교할 때, 그보다 거의 정확히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이사야 시대인 기원전 701년에 앓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앓수르 왕은 유다의 46개 성읍을 함락시키고 히스기야를 새장에 가두듯 가두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 밖에서도 이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산헤립과 그의 군대는 25마일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의 완충지로 계획된 라기스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 도시를 정복하고 포위하는 방식으로 궁전의 벽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행진합니다.

산헤립과 아시리아 군대는 18만 명의 병력으로 그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히스기야와 그의 외교관들에게 와서 예루살렘 도시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께서 다른 신들보다 더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그들의 백성을 우리에게서 구원할 수 있었느니라

이때 히스기야는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왕으로서 그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군사적 방법을 동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하는 일은 그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나아와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는 앓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수 없다고 말한 이 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성전에서 주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당신이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앗수르 왕이 너희를 두고 너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듣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만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은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 도시에 총을 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밤중에 나가서 앗수르 군대를 크게 멸하고 산헤립이 말을 타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01년 예루살렘 성은 기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거의 100년 후인 609년에 유다 백성에게 왔을 때, 백성은 시온의 절대적 불가침성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그것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적들을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예루살렘을 대신하여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어떻게 그 도시를 구원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바벨론 위기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시드기야가 와서 예레미야에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일 중 하나를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가 거기서 말하고 있는 놀라운 행위가 아마도 또 다른 히스기야식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든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그 전통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그 역사적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if-then 조건부에서는 삶과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안전이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추정의 한 형태인 언약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셨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그들의 전통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편 46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시온의 다른 시편들인 시편 48편과 76편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개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편리하게도 무시해 왔던 그들의 전통에 관한 것들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전 신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웃이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편재하신다고 믿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임재를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백성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선택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세 번씩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기쁨과 경험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한 곳에서 말하기를, 주의 뜰에서 있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보내는 수천 날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나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누리는 것,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시온의 요새이심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여 평화롭게 흐르는 강과 같다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시온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부과된 책임과 요구 사항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존재.

사람들이 다양한 시간에 예배하러 오기 때문에 우리는 입회식으로 묘사되는 시편 15편, 24편과 같은 시편을 봅니다. 누가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편에 나오는 대답은 아마도 백성이나 제사장이 질문을 하고 백성이나 제사장이 대답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갈 권리가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자입니다. 당신이 이 존재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당신에게 부과하는 책임을 이해하십시오.

시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생각, 그분은 요새이시라는 생각, 적군이 예루살렘에 들이닥칠 때 그들을 바람처럼 흩어버리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보호가 사람들의 신뢰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다른 곳도 있습니다. 시편 20편에 보면,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 보호를 누리는 것은 당신이 신뢰했던 다른 모든 것, 즉 군사력, 말, 병거, 이집트와의 동맹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701년 히스기야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가 구원된 것은 히스기야가 미가가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라고 전파한 경고를 들었을 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7장의 이 설교에서 예레미야가 하려는 일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들의 잘못된 확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배경을 설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의 맥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 뒤에 숨은 이념적 갈등이다. 8장 1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언약에 대한 백성들의 생각과 이해를 얻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홍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되 평강이 없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장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특별한 날 예루살렘 시민의 마음 속에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싶은가? 선지자는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알려 주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땅으로 일으키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기서 하기가 꽤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수사적으로 그는 백성들의 언약관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2장에서처럼, 예레미야가 그들을 매춘부라고 비난하고 이 논쟁에 참여할 때,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모든 것에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것을 믿도록 어떻게 설득합니까? 이것이 7장에서 예레미야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의 수사적 전략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파하며, 주님께서는 그가 이 메시지를 설게하도록 어떻게 도우시는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메시지가 매우 긍정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시작 부분에는 진정한 기회가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사실 수백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길과 행위를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서 단지 멸망만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들의 길을 바꾸고, 시온 시편에 묘사된 시온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5-7절에 “만일 너희가 참으로 너희 길과 행위를 옳게 하고 진실로 피차 공의를 행하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히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이곳에 거주하게 하라.

그래서 처음에는 긍정적인 강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하고, 자신의 길을 바꾸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3장에서 본 것과 똑같은 반복적이고 반복적인 부르심, 주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당신의 길을 고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회개할 진정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 성전 설교에 있는 예레미야 7장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질 때 마지막에 부정적으로 변할 뿐입니다. 괜찮은.

예레미야가 수사적으로 하려는 두 번째 일은 그들에게 언약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보세요, 언약만 보고 축복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는 항상 약속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십계명을 강조하고 호소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의무를 요약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 비디오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주님께서 하실 일은 십계명을 취하시고 그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느냐? 이것이 다루는 마지막 다섯 계명, 즉 이스라엘이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마지막 여섯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말하는 계명의 첫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것들을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서는 그것이 그들이 이 언약의 특별한 부분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모세의 말을 직접적으로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언약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희가 불순종했다고 말하고 있다. 언약의 저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예레미야가 매우 효과적으로 행할 일은 2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거짓된 확신을 반영하는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런 거짓된 말을 믿지 말라.

이것이 여호와와 전이요, 여호와와 전이요, 여호와와 전이니라. 이제 우리가 이것을 존재로 상상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그들의 슬로건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캡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이것을 세 번 반복하는 것은 단지 강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주님의 환상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긍정적인 확인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잘못된 자신감에 대한 부정적인 확인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짓 믿음. 예레미야는 이를 거꾸로 뒤집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성전에 대한 그들의 거짓 신뢰를 그분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에스겔서 8-11장에서 하나님 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서 솟아오르는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성전 문지방으로 갑니다.

성의 동쪽 문으로 갔다가 완전히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건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당신이 바벨론 군대에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보호의 임재를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심판에 맡기셨습니다.

시편 46편에서 주님이 당신의 요새이자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거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일은 정확히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보호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0절에서는 거짓 소망이 백성들의 인용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으로 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용문 4절과 10절,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소용이 없을 일에 희망을 걸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레미야가 할 네 번째 일은 2장에서 본 것과 매우 유사하며 선지자가 다시 수사학적 질문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사학적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사적 질문은 단순한 수사적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하겠느냐? 정말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11절에 나오는 관련 수사적 질문: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굴혈로 보이느냐? 여러분은 죄에 더러움이 없으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집을 범죄자들의 소굴로 만드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런 식으로 질문이 던져지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또 다른 수사적 장치는 선지자가 그들에게 성전이 실제로 누구의 집인지 직접적으로 상기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집이니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그 표현은 법적 소유권을 표현합니다. 이곳은 왕의 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다의 집이 아닙니다.

이곳은 시민이 아닌...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활 방식과 행동으로 그 집을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파괴하실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에 가서 성소를 훼방할 때에 그 성소의 제사장 중 하나가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왕의 성소를 훼방하여 전파하느냐? 예레미야는 이곳이 왕의 성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요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섹션에서 예레미야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사적 장치는 예레미야가 과거 역사의 비유와 예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 어쩌면 이 장소는 우리가 본문을 읽는 동안 실제로 마음에 와 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유 중 하나는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선지자가 말하노니 이제 내가 내 이름을 두었던 곳 실로에 가서 거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좋아요, 잠시 실로(Shiloh)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로는 정복 때부터 왕정 시대까지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그곳에 성막과 성소가 있고 백성이 예배하러 오는 곳이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 초기에 나오는 사사 시대가 끝날 무렵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배도 때문에 실로에 있는 성소가 파괴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은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던 곳이기 때문에 특히 효과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무엘서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곳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던 또 다른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언약궤가 그들을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행운의 부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전투에 나가서 행운의 부적을 가지고 갑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고,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그와 같은 종류의 거짓 확신이 바로 예레미야서 7장에 나오는 메시지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7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이 잊어버린 역사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실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해 봅시다. 시편 78편 56절부터 62절까지에는 실로에 관한 진술과 실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처럼 패역하게 행하였느니라.

그들은 속이는 활처럼 비뚤어져, 그들의 산당들로 그분의 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로 그를 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인류 가운데 거하시던 장막인 실로의 거처를 버리셨습니다. 그의 백성을 포로에게 붙이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도다

그는 그의 백성을 칼에 넘겨주고 그의 진노를 그의 기업에 쏟아부었습니다. 실로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까지 그것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으며, 정확히 그때 일어났던 일은 미래에도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주가 실로에 있던 당시 부패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의 아들들이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심판에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일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시대에도 부패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들이 701, 701절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절대적으로 완벽한 반대이며, 하나님의 예루살렘 구원은 성경의 유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로에 대한 알림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715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그들의 최근 역사에서 나온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라는 또 다른 비유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친족 곧 에브라임 모든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북왕국의 멸망을 상기시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면 패할 수도 없고 심판을 받을 수도 없고 멸망할 수도 없습니다. 북쪽에 있는 당신의 친척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여기 예레미야서 3장으로 돌아가서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수사학적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메시지에 대해 어떤 종류의 반응이 있을 것인가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 메시지의 거친 어조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믿지 않았으며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7장 16절에서 우리는 여기서 주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며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판단을 가져올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은 하늘의 여왕을 위한 과자를 만들었는데, 아마도 가나안의 다산의 여신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장의 아래 부분에는 힌놈의 골짜기와 도벳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거짓 신들에게 이러한 제사를 드렸으며, 그곳에서는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도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길을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여기 마지막 부분에 특별 섹션이 있으며, 이 섹션을 마무리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몇 가지 해석 문제가 있습니다. 21-23절에서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번제물과 제물에 그 고기를 더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번제나 희생에 관하여는 너희 조상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였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명한 것은 내 말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좋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번제물에 더하라, 너희 제물에 번제물을 더하여 그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뜻입니까? 그 구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친교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는 화목제나 화목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희생제물의 일부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제물의 일부를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기도응답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여 가족이나 친구나 종들과 함께 먹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러나 번제물은 전혀 다른 형태의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측면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것은 죄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가족을 벗기면 그 동물 전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제물에 번제물을 더하고 그 고기를 먹으라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번제물을 나에게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먹는 것이 나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있는 생활 방식이 없으면 그 번제물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죄에 대한 속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대한 당신의 헌신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대한 헌신을 표현하고 싶다면 그것을 생활 방식으로 반영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희생제물에 번제물을 더하여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라.

그런 다음 주님은 또한 22절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여기서 주님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번제와 희생에 관하여는 너희 조상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에 대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그리고 우리는 마치 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출애굽기와 율법의 다른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런 것들을 바쳐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NIV가 이 구절이 말하는 바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확히 하기 위해 여기에 단어를 추가합니다. 나는 번제나 제사에 관하여 너희 조상들에게만 말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수사적인 방법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나는 제물과 제사에 관해 여러분에게 말하지도 않았습시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극단적인 과장된 표현은, 제가 그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하지도 않았지만, 정의의 기준과 제가 여러분이 살고 행동하기를 바랐던 방식에 비하면 희생과 의식은 부차적이었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저것.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제사와 예식과 예물과 성일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그것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전예배에서는 그러한 의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할 일은 유다가 내 목소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픈 사실과 깨닫는 슬픈 사실은 우리가 이 성전 설교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우 유효한 기회, 즉 회개하고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합법적인 제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내 종 선지자들이 날마다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였음이라.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보다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이 모든 말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네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하라. 진실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입술에서 잘려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2장과 3장에서 본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7장, 여러분의 길을 고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살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예레미야서 7장이 그러한 전환점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분수령이 되는 순간입니다.

바벨론의 위기가 그들을 덮치기 전에 그들에게는 대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역사 전반에 걸쳐 일어났던 일과 예레미야의 사역 전반에 걸쳐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저 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12회, 예레미야서 7장, 성전설교입니다.